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Life Satisfaction of Future Elderly and the Elderly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곽인숙

Departmen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In-Suk, Kwa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fluenced b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sonal activities, pers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 surveyed 504 future elderly people(age between 50 to 64) and the elderly(over 6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uture elderly people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an the elderly. Second, life satisfaction of the future elderly is rarely influenced by the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ereas,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s more influenced b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personal activities. Supports from neighbor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more satisfying their lives. Thus, we should come up with new programs providing opportunities to attend various social activities to maximize their life satisfaction of the future elderly. For the elderly, we need systems to build social network for supports from neighbors and to provide more job opportunities and educating programs.

주제어(Key Words) : 자아존중감(self-esteem), 우울감(depression), 노화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ging),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characteristic),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In-Suk, Kwak, Departmen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490 Hujung-ri, Samrye-up, Wanju-gun, Jeonbuk, 565-701, Korea Tel: +82-63-290-1526 Fax: +82-63-290-1416 E-mail: kwak1526@yahoo.co.kr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65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4.2%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인구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0). 노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긴 기간으로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며, 고령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보살핌이나 부양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슈는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의 정책과 서비스는 'aging in place'의 많은 장점을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ging in place'는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과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실제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이 현재의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홍성희, 2009; Pynoos, 1995).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정신적 기능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므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게 되며,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려면 점점 더 많은 공적·사적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성장한 자식들이 떠나버린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둥지증후군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 우울증, 허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10-20년후 노인이 될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연령층은 현재의 노인층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문화교류로 사회 참여에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과 취미 생활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며 나이와 젊음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생활양식과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 고학력자가 많아지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소비수준이 높고, 계획된 노후설계로 독립을 추구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욕구도 다양하여 취미활동, 교육,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보인다(강민정, 2003). 따라서 이들 예비노인층의 풍요로운 노년기를 위해서는 중년기

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생애경로 전 과정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현재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사회인구학적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김수연, 1987; 김종숙, 1987; 김지연, 2002; 이신숙, 2004) 심리적 특성, 사적인 지원, 개인의 활동 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는 적었다. 그러나 노년기는 인생전반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업적과 함께 잘못된 것까지도 받아들이며 자아통합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있어 일상의 생활경험으로부터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가 가지는 의미는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예비노인과 노인은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10여년 후 대량 노인인구로 변화될 예비노인과의 특성을 비교연구함은 미래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이 될 예비노인층의 삶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인 특성 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노인과 예비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의 절감과 개인적으로는 노인기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은 어떠한 삶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대상으로 '삶의 질', '삶의 만족',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등이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성공적 노화의 척도로서 삶의 만족정도 측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권중돈, 조주연, 2000; 김미령, 2008; 이신숙, 2004).

만족도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 차원까지 포함하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노년기의 삶의 만족이란 한 개인이 노화하여 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로 볼 수 있다(김재중, 2007). 특히 중고령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인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강조되었다.

2.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관련변수의 선정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체로 주관적 요소인 심리적 변수와 객관적요소인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소가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외에 사적인 지원, 개인의 활동, 심리적인 특성 등이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고,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자 노인들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쇠퇴를 가져와 만성적 질환과 장애를 갖기 쉬워지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김지연, 2002; 박경란, 1988; 이신숙, 2004). 김중숙(198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김명자(1982), 김수연(1987)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여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일관성있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성별 자체의 영향보다는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유무나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남녀간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의 어려움, 유능함의 감소, 능력의 감소를 가져와 실망과 통제의 결여를 가져오며, 더 많은 부양을 필요로 하며, 삶의 만족수준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정명숙(2007)의 연구결과에서 연령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에게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며,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생활전반에 걸쳐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낸다(송정선, 1997; 홍성희, 1998).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과 관련하여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김명자, 1982; 김재호, 1987). 그러나 정명숙(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수준의 영향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우울감,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이 높으며 사회적응도도 낮아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김지연, 2002; 김태현, 1980; 이신숙, 2004, 2009).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홀로 된 여자노인들에 있어서 사별은 오히려 여성의 유능함과 생존 능력을 강화시켜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능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5; 이신숙, 2004; 윤현숙, 유희정, 2006). 정명숙(2007)은 배우자유무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삶 전반에 대해 더 만족하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유무에 따라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기본적인 욕구일뿐 아니라 노인의 자아와 지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생활만족을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중숙, 1986; 정명숙, 2007). 그러나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월평균소득, 총자산, 용돈 등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적 상태는 삶의 만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종교유무, 주택과 같은 관계변인들이 있다.

2) 개인의 활동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연구(김성연, 박미석, 2000; 이해자, 서명옥, 신윤아, 2003; 홍성희, 1998)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활동 참여집단일수록 복지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음악이나 노래부르기와 같은 취미활동, 종교적 모임, 사회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활력을 되찾게 해주며, 노년기의 정서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며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김수연, 2002; 김수정, 2006; Cohen & Mansfield, 1989). 노인들의 경우 미술, 음악, 운동, 작업, 회상치료 등 심리사회적 치료가 우울증상에 효과가 있다(김효정, 최선남, 2010; 심경혜, 2005; 장혜경, 최외신, 2005). 이러한 심리치료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실감을 제공하며, 집단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를 받으면서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다양한 사회활동, 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은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적인 지원

가족관계만족은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라고 하였다(박상규, 2006; 홍성희, 1998). 높은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며, 의미있는 관계를 지속시켜 노인의 고립을 막아주고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며,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있는 존재로서 존중받는다라고 느끼게 된다(김영주, 2009; 박선영, 1998; 배진희, 2004; 이민숙, 2005). 남녀 노인들의 사회적지지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성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지지보다는 친구의 지지가 더 광범위한 완화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정, 2007). 자녀로부터의 지지는 남녀노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여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비공식적 사적인 지원으로 가족, 형제·친척, 이웃으로부터의 지원만을 선정하였다.

4) 심리적 특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개인의 심리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로 '개인이 자신을 가치있어 (worthwhile)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홍성희, 박인숙, 2010;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강이주, 2008; 김태현, 한은주, 2004; 홍성희, 1998). 또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면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인을 우울하게 하며 나아가 자살의 위험성을 높여 준다. 개인의 우울감은 신체적 건강이나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 등이 유발요인이며,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예방되거나 감소되고 이로 인해 위기와 불행도 예방·치유될 수 있다(김영주, 2009). 외향적이며 낙관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일수록 삶 전반에 대해 더욱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숙, 2007). 따라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만족과 정적인 상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으로는 삶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노화에 대한 태도 등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인과 예비노인층의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노년기의 삶의 만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노인과 노인의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과 예비노인이 차이를 보이는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내용과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독립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심리적 특성, 사적 지원, 개인의 활동요인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1)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성, 배우자유무, 월평균 가계총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직업유무, 종교유무, 거주지속년수 등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측정을 위한 도구는 김재중(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663이었다.

(2) 개인의 활동과 사적지원

개인의 활동 관련 측정도구는 김재중(2007), 송은이(200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활동의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921이었으며, 여가활동의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911이었으며, 봉사활동의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948, 종교활동의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971이었다. 사적지원중 가족지원측정을 위한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857, 형제나

친척의 지원 5개문항의 신뢰도계수는 .809, 이웃의 지원 5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800이었다.

(3)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감, 자아존중감을 각각 6 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개발한 Zung(1965)의 자기평가 우울척도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729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이영호(1993)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689이었다. 노화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김태연(1988), 홍성희와 광인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예비검사를 통해 노화에 대한 태도, 6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노화에 대한 태도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726이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2)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최성재(1986)의 연구에서 사용

된 20개 문항과 이미숙(1985)의 18개 문항, 양옥경(1994)의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33개 문항을 중복 의미의 문항을 제거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7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5$ 이었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 중소도시와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으며, 예비노인층(50세-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520명을 조사하였다. 질문지에 의거한 1인 면담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504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10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개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10)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	1 = 여성 0 = 남성
연령	만 나이
교육수준	교육받은 연수
가족구성	1 = 핵가족 2 = 확대가족 3 = 노인부부가족 4 = 독거노인
배우자유무	1 = 배우자 있음 0 = 배우자 없음
가계총소득	지난 1년간 가족의 총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건강상태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직업유무	1 = 직업 있음 0 = 주부, 직업 없음
종교유무	1 = 종교 있음 0 = 종교 없음
거주지속년수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주택의 유형	1 = 단독주택 2 = 아파트 3 = 연립주택 4 = 다세대, 다가구주택 5 = 기타
주택의 소유	1 = 자가 0 = 임대
개인의 활동	
사회활동(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여가활동(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봉사활동(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종교활동(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사적인 지원	
가족지원(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형제, 친척지원(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이웃의 지원(5)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6)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우울감(6)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노화에 대한 태도(6)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 : 질문 문항수

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삶의 만족도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진단을 통해 변수들간의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VIF값은 모두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1.5%, 여성 58.5%였으며, 연령은 50대가 23.0%, 60대가 43.5%, 70세 이상이 33.5%로 예비노인층인 65세 미만은 30.8%, 노인은 69.2%로 평균연령은 66.21세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25.6%, 중학교졸업이 22.2%, 무학이 12.5%, 전문대학이상인 경우가 9.0%로 연령에 따라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족이 28.0%,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는 20.8%, 독거노인의 비율은 15.7%로 예비노인층의 경우는 핵가족이 많았으며, 노인기에는 노인부부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8.8%,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1.2%였다. 조사대상자중 직업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경우는 48.2%, 직업이 있는 경우는 51.8%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71.2%로 기독교가 43.5%, 불교 15.9%, 천주교 9.9%, 종교가 없는 경우는 28.8%였다. 주택유형은 50.2%로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9.3%, 기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10.5%였다. 주택의 소유는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인 경우가 65.5%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소유인 경우는 22.8%, 임대인 경우는 11.7%였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231.5만원으로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 384만원(통계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0만원인 가계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로 가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컸다. 거주지속년수는 13.47년으로 최대 60년을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도 있어 노년기가 될수록 한 곳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노인과 노인의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 수준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수준이 예비노인과 노인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504)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09	41.5
	여성	295	58.5
연령	50대	116	23.0
	65대	219	43.5
	70대 이상	169	33.5
직업	직업없음	151	30.0
	전업주부	92	18.3
	농사	90	17.9
	자영업	66	13.1
	단순노동	34	6.7
	관리사무직	27	5.4
	기타	44	8.7
교육수준	무학	63	12.5
	초등학교졸업	129	25.6
	중학교졸업	112	22.2
	고등학교졸업	155	30.8
	전문대학졸업이상	45	9.0
가족구성	핵가족	179	35.5
	확대가족	105	20.8
	노부부가족	141	28.0
	노인1인가구	79	15.7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359	71.2
	무배우자	145	28.8
종교	기독교	219	43.5
	천주교	50	9.9
	불교	80	15.9
	종교없음	145	28.8
	기타 종교	10	2.0
주택유형	단독주택	198	39.3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53	10.5
	아파트	253	50.2
주택소유	본인소유	330	65.5
	자녀소유	115	22.8
	전월세, 무상임대	59	11.7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총가계소득(만원)		231.51	246.29
평균 연령(세)		66.21	8.268
거주지속년수(년)		13.47	11.017

은 두 집단의 평균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표 3 참조).

개인의 활동에서는 노인집단이 사회활동은 평균 4.883점(7점 만점), 여가활동은 평균 4.575점으로 예비노인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적인 지원에서 가족지원은 예비노인층(5.415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나 친척지원(4.580점), 이웃의 지원(4.302점)은 예비노인보다는 노인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중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노인은 평균 4.750점으로 예비노인층의 평균 5.03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수준은 노인은 평균 3.472점으로 예비노인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예비노인의 경우 평균 3.984점이며, 노인의 경우 평균 3.655점으로 예비노인들이 노인보

<표 3> 예비노인 및 노인의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N = 504)

	예비노인(155)		노인(349)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의 활동	사회활동	4.550	1.346	4.883	1.054	-2.997**
	여가활동	4.305	1.491	4.575	1.128	-2.244*
	봉사활동	4.168	1.443	4.013	1.339	N.S.
	종교활동	4.600	1.855	4.415	1.818	N.S.
사적인 지원	가족지원	5.415	.956	4.876	1.014	5.557***
	형제, 친척지원	4.357	1.127	4.580	1.103	-2.081*
	이웃의 지원	4.101	.987	4.302	1.031	-2.051*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5.039	.892	4.750	.822	3.559***
	우울감	3.266	.957	3.472	.744	-2.620**
	노화에 대한 태도	3.984	.935	3.655	.819	3.784***
삶의 만족도	4.778	.745	4.598	.766	2.243*	

* $p < .05$, ** $p < .01$, *** $p < .001$

다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예비노인의 경우 평균 4.778점이며, 노인의 경우 평균 4.598점으로 예비노인들이 노인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노인층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삶의 만족수준도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3. 예비노인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 주관적으로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지속년수 등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높았으며, 거주지속년수는 5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집단보다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가계총소득, 직업유무, 종교유무, 주택의 유형과 소유 등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상태, 직업유무, 종교유무, 주택의 유형, 주택의 소유 등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높았으며, 가계총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과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는 상인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총소득액수보다는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삶의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속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수준은 예비노인과 노인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위해서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00~.557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노화에 대한 태도로서 상관계수 $r = .49$ 로 나타났다. 그 외에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가족지원($r = .49$), 건강상태($r = .48$), 사회생활($r = .44$), 이웃지원($r = .43$), 우울감($r = -.38$), 형제 및 친척지원($r = .36$), 여가활동($r = .26$), 봉사활동($r = .23$), 종교활동($r = .21$), 주관적 경제상태($r =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만이 삶의 만족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예비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

〈표 4〉 예비노인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N = 504)

사회인구학적 요인		예비노인(155)		노인(349)	
		N(평균)	F/T 값	N(평균)	F/T 값
교육수준	중졸이하	20(27,901) B	4.808**	172(27,006) B	8.323***
	고졸	23(31,565) A		89(26,899) B	
	대졸이상	112(28,123) B		88(29,432) A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135(28,437)	N.S.	224(28,442)	-4.367***
	배우자 없음	20(30,250)		125(26,064)	
가계총소득	100만원 미만	22(28,182)	N.S.	133(26,857) B	3.516**
	100-200만원 미만	33(27,545)		73(29,164) A	
	200-300만원 미만	39(30,102)		42(27,214) B	
	300만원 이상	61(28,561)		101(27,574) AB	
주관적 경제상태	경제상태 상	34(30,941) A	5.189**	58(31,914) A	46.874***
	경제상태 중	88(28,284) B		231(27,467) B	
	경제상태 하	33(27,363) B		60(23,883) C	
건강상태	건강양호	46(31,369) A	10.907***	77(31,455) A	48.646***
	건강보통	92(27,641) B		201(27,249) B	
	건강불량	17(26,941) B		71(24,366) C	
직업유무	직업있음	129(28,821)	N.S.	132(26,879)	2.167*
	직업없음	26(27,923)		217(28,023)	
종교유무	종교 있음	116(28,974)	N.S.	243(28,201)	-3.946***
	종교 없음	39(27,769)		106(26,189)	
거주지속 년수	5년 미만	39(27,256) B	3.739*	52(26,692)	N.S.
	5-15년 미만	68(29,823) A		183(27,732)	
	15년 이상	48(28,187) AB		114(27,772)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51(29,607)	N.S.	147(26,925)	2.198*
	공동주택	104(28,211)		202(28,074)	
주택의 소유	자가	128(28,984)	N.S.	317(27,817)	-2.216*
	임차	27(27,185)		32(25,343)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상태, 직업유무, 종교유무, 거주지속 년수, 주택의 유형, 주택의 소유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참조).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은 23.6%였으며, 건강상태($\beta = .471$), 직업유무($\beta = .179$), 종교유무($\beta = .153$), 성별($\beta = .147$)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노인은 건강할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여성인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개인의 활동요인인 사회활동, 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활동 요인의 설명력은 19.9%였으며, 사회활동($\beta = .348$), 여가활동($\beta = .185$)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노인은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사적인 지원요인인 가족지원, 형제 및 친척지원, 이웃의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사적인 지원 요인의 설명력은 34.3%였으며, 가족지원($\beta = .418$), 이웃

의 지원($\beta = .357$)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노인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우울감, 노화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요인의 설명력은 33.1%였으며, 노화에 대한 태도($\beta = .452$), 우울감($\beta = -.333$)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노인은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델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활동요인, 사적인 지원요인, 심리적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각 변인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48.4%로 나타났다. 사회활동($\beta = .423$), 봉사활동($\beta = .288$), 여가활동($\beta = .259$), 가족지원($\beta = .218$), 건강상태($\beta = .205$), 우울감($\beta = -.205$), 노화에 대한 태도($\beta = .196$)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

〈표 5〉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														
2	-.15	1.0													
3	-.17*	.18*	1.0												
4	-.24**	.16*	.34**	1.0											
5	.04	.04	-.11	.02	1.0										
6	.13	-.12	.11	-.02	.11	1.0									
7	-.19*	.06	.10	.37**	.17*	.31**	1.0								
8	-.00	-.34**	-.03	-.03	.00	.29**	.53**	1.0							
9	.09	.02	-.14	-.21**	.14	.39**	.16	.13	1.0						
10	-.26**	.26**	-.04	-.34**	.54**	.16	.22**	.04	.13	1.0					
11	-.23**	.05	.22**	.33**	.40**	.17*	.39**	.02	.02	.50**	1.0				
12	.19*	-.02	.04	.04	.28**	.56**	.53**	.51**	.08	.21**	.46**	1.0			
13	-.26**	.04	.10	.30**	.32**	-.17*	.38**	.21**	-.05	.33**	.13	.09	1.0		
14	-.15	-.07*	.03	-.42**	-.3**	.01	-.5**	-.3**	-.01	-.5**	-.24**	-.18*	-.38**	1.0	
15	.08	-.07	.11	-.14	.18*	.39**	.11	.10	.08	.08	.14	.30**	.06	-.14	1.0
16	-.01	.09	.00	.20*	.48**	.44**	.26**	.23**	.21**	.49**	.36**	.43**	.11	-.38**	.49**

1:연령 2:교육수준 3:가계총소득 4:주관적 경제상태 5:건강상태 6:사회활동 7:여가활동 8:봉사활동 9:종교활동 10:가족지원 11:형제·친척지원 12:이웃의 지원 13:자아존중감 14:우울감 15:노화에 대한 태도 16:삶의 만족도

* $p < .05$, ** $p < .01$

〈표 6〉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효과 분석

(N = 155)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합모델
	b(β)	b(β)	b(β)	b(β)	b(β)
사회인구학적요인					
성별	1,383(.147)*				1,267(.135)
연령	.115(.110)				.049(.048)
교육수준	-.009(-.008)				.132(.113)
배우자유무	-.458(-.033)				-1.687(-.128)
가계총소득	.001(.072)				-.001(-.077)
주관적 경제상태	.090(.106)				.100(.123)
건강상태	.529(.471)***				.223(.205)*
직업유무	2,244(.179)*				1,958(.163)
종교유무	1,627(.153)*				.311(.030)
거주지속년수	.104(.178)				-.031(-.054)
주택의 유형	-1,112(-.111)				-.961(-.100)
주택의 소유	1,610(.128)				-.022(-.002)
개인의 활동					
사회활동		.181(.348)***			.199(.423)***
여가활동		.124(.185)*			.160(.259)**
봉사활동		.017(.025)			.181(.288)***
종교활동		.009(.024)			-.024(-.070)
사적인 지원					
가족지원			.271(.418)***		.132(.218)*
형제, 친척지원			-.009(-.011)		.051(.064)
이웃의 지원			.355(.357)***		-.011(-.012)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037(-.047)	-.045(.060)
우울감				-.217(-.333)***	-.122(-.205)*
노화 태도				.533(.452)***	.158(.196)*
상수	3,425	19,744***	9,744***	21,484***	-24,724***
F-value	4.897***	10.350***	27.312***	26.048***	16.759***
R²(Adj. R²)	.297(.236)	.220(.199)	.356(.343)	.344(.331)	.562(.484)

* $p < .05$, ** $p < .01$, *** $p < .001$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예비노인층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이 삶의 만족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요인인 우울감과 노화에 대한 태도 역시 영향이 크므로 이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예비노인층의 활발한 사회참여 기회를 창출해야 될 것이며, 우울감을 낮추어주고,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적절한 심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00~.657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형제 및 친척의 지원으로 상관계수 $r = .54$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건강상태($r = .53$), 우울감($r = -.51$), 가족지원($r = .49$), 이웃지원($r = .48$), 노화에 대한 태도($r = .47$), 봉사활동($r = .46$), 여가활동($r = .45$), 주관적 경제상태($r = .45$), 사회활동($r = .41$), 자아존중감($r = .28$), 종교활동($r = .24$), 교육수준($r =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만이 노인의 삶의 만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참조).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은 48.4%였으며, 건강상태($\beta = .489$), 주관적 경제상태($\beta = .358$), 주택의 소유($\beta = .265$), 종교유무($\beta = .258$), 배우자유무($\beta = .233$), 거주지속년수($\beta = .131$), 가계총소득($\beta = -.119$), 교육수준($\beta = .107$), 연령($\beta = .102$)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은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거주지속년수가 길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졌으며, 가계총소득은 부적 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개인의 활동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활동 요인의 설명력은 31.5%였으며, 봉사활동($\beta = .346$), 여가활동($\beta = .212$), 종교활동($\beta = .114$)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은 봉사활동과 여가활동, 종교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사적인 지원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적인 지원 요인의 설명력은 36.3%였으며, 형제 및 친척지원($\beta = .279$), 가족지원($\beta = .261$), 이웃의 지원($\beta = .197$)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은 모든 종류의 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심리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요인의 설명력은 37.6%였으며, 우울감($\beta = -.462$), 노화에 대한 태도($\beta = .388$), 자아존중감($\beta = .126$)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은 우울감의 수준

<표 7>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														
2	-.09	1.0													
3	.44**	.28**	1.0												
4	-.00	.15*	.15**	1.0											
5	-.13*	.18**	-.03	.35**	1.0										
6	.03	-.02	.10	.04	.15**	1.0									
7	.22**	-.06	.11*	.19**	.29**	.66**	1.0								
8	-.16**	.08	.06	.36**	.50**	.34**	.33**	1.0							
9	.04	-.13*	-.04	-.16**	-.08	.38**	.29**	.05	1.0						
10	.06	.13*	.16**	.46**	.35**	.28**	.27**	.13*	-.03	1.0					
11	.15**	-.06	.07	.34**	.36**	.31**	.48**	.41**	.22**	.51**	1.0				
12	.13*	-.15**	.07	.22**	.24**	.43**	.45**	.44**	.33**	.40**	.63**	1.0			
13	.04	-.12*	.27**	.23**	.10	.21**	.15**	.08	.12	.45**	.32**	.15**	1.0		
14	.13*	-.07	-.03	-.45**	-.3**	-.11*	-.10	-.2**	-.05	-.59**	-.3**	-.2**	-.54**	1.0	
15	.08	.04	.13*	.15**	.26**	.63**	.46**	.20**	.28**	.49**	.41**	.47**	.40**	-.29**	1.0
16	-.04	.14*	-.03	.45**	.53**	.41**	.45**	.46**	.24**	.49**	.54**	.48**	.28**	-.31**	.47**

1:연령 2:교육수준 3:가계총소득 4:주관적 경제상태 5:건강상태 6:사회활동 7:여가활동 8:봉사활동 9:종교활동 10:가족지원 11:형제·친척지원 12:이웃의 지원 13:자아존중감 14:우울감 15:노화에 대한 태도 16:삶의 만족도

* $p < .05$, ** $p < .01$

〈표 8〉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 분석

(N = 349)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합모델
	b(β)	b(β)	b(β)	b(β)	b(β)
사회인구학적요인					
성별	.541(.053)				-.193(-.019)
연령	.104(.102)*				.312(.119)**
교육수준	.130(.107)*				.238(.267)***
배우자유무	2.423(.233)***				1.700(.198)***
가계총소득	-.003(-.119)*				-.005(-.230)***
주관적 경제상태	.374(.358)***				.162(.178)***
건강상태	.479(.489)***				.226(.154)***
직업유무	.160(.015)				-.579(.057)
종교유무	2.802(.258)***				1.517(.195)***
거주지속년수	.055(.131)**				.010(.141)**
주택의 유형	-.653(-.065)				-1.126(-.126)*
주택의 소유	4.590(.265)***				3.729(.202)***
개인의 활동					
사회활동		.074(.110)			.116(.151)**
여가활동		.189(.212)***			-.001(-.001)
봉사활동		.257(.346)***			.049(.066)
종교활동		.045(.114)*			.007(.019)
사적인 지원					
가족지원			.160(.261)***		-.024(-.039)
형제, 친척지원			.252(.279)***		.047(.052)
이웃의 지원			.190(.197)***		.221(.239)***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10(.126)*	.095(.140)**
우울감				-.388(-.462)***	-.241(-.235)***
노화 태도				.389(.388)***	.181(.180)***
상수	2.315	14.163***	11.442***	31.323***	-1.981
F-value	28.235***	40.492***	66.454***	70.891***	32.198***
R²(Adj. R²)	.502(.484)	.323(.315)***	.369(.363)	.381(.376)	.722(.701)

* p < .05, ** p < .01, *** p < .001

이 낮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델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활동요인, 사적인 지원요인, 심리적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각 변인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70.1%로 나타났다. 교육수준(β = .267), 이웃의 지원(β = .239), 우울감(β = -.235), 가계총소득(β = -.230), 주택의 소유(β = .202), 배우자유무(β = .198), 종교유무(β = .195), 노화에 대한 태도(β = .180), 주관적 경제상태(β = .178), 건강상태(β = .154), 사회활동(β = .151), 거주지속년수(β = .141), 자아존중감(β = .140), 주택의 유형(β = -.126), 연령(β = .119)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았다. 이웃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이신숙(2009)과 정명숙(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교를 가진 경우 삶의 만족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김수정(200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며,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거주지속년수가 길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이주(2008), 서원홍(2008) 등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총소득액은 삶의 만족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소득액수의 상승보다는 경제상태의 인지수준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비노인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이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경우는 개인의 활동보다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컸으며, 이웃의 지원수준과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예비노인의 경우는 활발한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살면서 이웃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적고,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고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감 감소,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중 개선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종교를 가지도록 하거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상황일 경우 삶의 만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활동, 사적인 지원,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며, 노인과 예비노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예비노인보다 노인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지원은 예비노인층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나 친척지원, 이웃의 지원은 노인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예비노인층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삶의 만족수준도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은 23.6%, 개인의 활동 요인은 19.9%, 사적지원 요인은 34.3%, 심리적 요인은 33.1%로 사적인 지원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48.4%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은 48.4%, 개인의 활동 요인은 31.5%, 사적지원 요인은 36.3%, 심리적 요인은 37.6%,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70.1%로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이웃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

우자가 있는 경우, 종교를 가진 경우,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거주지속년수가 길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과를 종합하면 예비노인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이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경우는 개인의 활동보다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컸으며, 이웃의 지원수준과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상태, 사회활동, 우울감과 노화에 대한 태도 등은 예비노인과 노인 두 집단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우울감을 낮추어줄 수 있고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변인외에 예비노인층의 경우는 개인의 활동 요인이 삶의 만족 수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이 활발히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노인의 경우는 삶의 만족수준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개인에 따라 삶의 만족 결정요인이 다양하므로 노인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개인별 욕구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웃의 지원이 많을수록, 한곳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지므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가 요망됨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삶의 만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와 사회활동이므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노년기에 적절한 운동과 오락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네트워킹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사회적 지원을 확대시키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과 능력 등의 내적자원을 살려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하여 우울감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자칫 노인의 자살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우울감을 낮추어주고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이 가능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둘째, 예비노인층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이 증가하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봉사, 여가, 취미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활동성과 경제적 이득,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는 고령자의 일자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개인의 삶의 만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와 사회활동이므로 예비노인기부터 건강증진과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증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웃의 지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지므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망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삶의 만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별적인 욕구의 파악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공통요구를 가진 집단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노인층 여러 영향요인이 중복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위험이 큰 집단(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고, 경제상태가 열악한 여성노인)에 대한 문제 예방차원의 표적집단별 프로그램 마련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강민정(2003) 한국 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6.
 강이주(2008),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29-142.
 광인숙, 홍성희(2009), 노인의 노후부양과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7-38.
 권중돈, 조주연(2000)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

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김성연, 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02). 음악치료가 뇌졸중환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노인복지연구**, 33, 29-50.
 김영주(2009).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6, 77-104.
 김재중(2007).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호(1987).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2002). 자녀와의 관계와 성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 한은주(200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 9(3), 81-106.
 김효정, 최선남(2010).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 성질한 입원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99-118.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장남부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상규(2006).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85-796.
 박선영(1998).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정책**, 2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7-216.
 심경혜(2005). 집단미술치료가 우울증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옥경(1994). 삶의 만족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157-198.
 윤현숙, 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민숙(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2004). 자기진술에 의한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한국가정과학회**, 7(2), 73-81.
- 이신숙(2009).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연령, 경제상태, 신체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15-227.
- 이인정(2007).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159-180.
- 이혜자, 서명옥, 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수-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겨울), 127-150, 한국노인복지학회.
- 장혜경, 최외선(2005).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3-128.
-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49-274, 한국노인복지학회.
-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http://www.kostat.go.kr>에서 2010년 9월 28일 인출.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성희, 곽인숙(2010). 세대간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4(2), 177-199.
- 홍성희, 이경희, 곽인숙, 김순미, 김혜연, 김성희(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Chatfield, W. 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of Gerontology*, 44, 169-171.
- Cohen, J., & Mansfield(1989) Employment and volunteering roles for the elderly: characteristics, attributions and strategies.
- Cumming, E., & Henry, W. E.(1961),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Y.; Basic Books.
- Pynoos, J., Cohen, E., Davis, L., & Bernhardt, S.(1987) Home modifications improvements that extend independence. In Reginer, V., and Pynoos, J, Housing for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 Elsevier, 277-30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oebe, M., Stroebe, W., & Hansson, R. O.(1993),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Cambridge Univ.Press.
- Tinsley, T., & Kaufman, E.(1985) A System of Classification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s. *J. of Gerontology*, 40(2), 172-178.

접 수 일 : 2010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0일